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호 TAU-USA 기사에 나왔듯이, 11월의 국가 형제회 총회에서 Ecumencial-Interfaith 위원장으로서의 제 임기가 끝이 나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위원장으로 매우 기쁘게 지냈으며,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성이 깊고 재능이 있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일할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임기제의 큰 장점의 하나는 재속프란치스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형제회 안에서 봉사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남겨질 영향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영향은 교회의 일치와 타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원래의 문서를 공부할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Unitatis Redintegration* (일치 운동에 대한 교령)과 *Nostra Aetate*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으로, 바티칸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치의 재건 (일치 운동에 대한 교령)

이 교령은 그리스도교회들의 일치를 복구하는 것을 다룬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들의 불일치를 파헤친다. 물론, 지면 관계로 이 교령 전부를 다룰 수는 없지만 아래의 몇 장은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1장 일치가 우선.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일치의 재건을 촉진하려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중대한 목적의 하나이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 유일하다.

3장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에 대한 역사. 처음부터 이미 분열이 생겨났으며, (1 코린 11. 18-19: 갈라 1. 6-9; 1 요한 2.18-19 참조) 사도는 이 분열을 단죄하여야 한다고 엄중히 책망하였다. (1 코린 1.11 이하: 1.12 참조)

5장 일치를 향한 모든 이의 관심. 일치 회복은 신자이든 목자이든 온 교회의 관심사이다. ... 누구나 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9장 가톨릭과 비 가톨릭의 대화. 갈라진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에 따라 선의의 연구를 하여야 한다.

20장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공통된 초점.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며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드리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다.

우리 시대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이 선언은 인간 모두의 신에 대한 추구를 말한다. 아브라함의 유일신 전통밖에 있는 종교들과 이슬람교, 유대교에 대하여,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 종교들은 자신을 뛰어넘어 모두의 창조자와 일치를 구하고자 한다.

3장 이슬람교에 대하여: 교회는 또한 모슬렘도 존중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을 흠송하며,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순종하였듯이 그들 신의 감추어진 뜻에 충심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4장 유대교에 대하여: 그리스도 교회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따라 이미 성조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에게서 교회의 신앙과 선택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한다....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시고 당신 안에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교회는 믿고 있다.

5장 결론: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형제로 대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느님 아버지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이웃 형제들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1 요한 4.8)

교회의 일치와 종교 간의 일에는 사랑, 기도, 개인의 변환,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그리고 이외에도 여기에 거론하지 않은 다른 요소들이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바람을 반영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데에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 신앙과 비 그리스도 신앙과의 관계에는 금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에 봉사하는 모두는 하느님의 영감과 명령에 마음을 열어야 하며, 변환된 마음은 필수적입니다. 타 신앙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큰 덕은 사랑이므로, 교회의 일치와 비그리스도교와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존중과 겸손과 성실과 온유와 관대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빌어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사람들은 존엄과 존경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봉사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과의 교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봉사했던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 안에서 여러분의 자매인
Ann Mulqueen, ofs